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의 세세한 부분에 까지 모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놓칠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랑 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 대하여 가지신 계획에 대하여,

에베소서 2 :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we are God' s [own] handiwork (His workmanship), recreated in Christ Jesus, [born anew] that we may do those good works which God predestined (planned beforehand) for us [taking paths which He prepared ahead of time], that we should walk in them [living the good life which He prearranged and made ready for us to live]. (Amplified Bible)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할 선행을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I.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준비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있어서의 오해

1.1 그 첫째는 하나님은 남의 행복을 뺏는 신(Celestial Killjoy)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의 즐기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서 모기에 뜯기고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7 :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마태복음 7 :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선교사나 어떤 독특한 부류의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오해
하나님의 뜻은 신앙인은 모두가 분별해야 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약 1: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3 예언기도에 대한 오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처럼,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해의 소치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예언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에게 특별영감을 주었지만 신약의
성도는 그런 특별 영감을 주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언 은사를 받은 성도가 하는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보다 권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신약의 예는 사도 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

사도행전 21 :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실제로 발생한 상황>

사도행전 21 :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최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유대인들이 결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결박하였다.

사도행전 21 :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 말로 어떤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도행전 21 :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 준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들고 갔다.

사도행전 21 :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IV. 하나님의 인도 하심의 네가지 다른 방식

1.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우리의 준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개인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 :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살이에 대해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것은 좋은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 : 16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2. 네가지 다른 방식

1. 주권적 인도

인생사의 제반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만사를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제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도하신다.

지난 후에 알려진다.

예 : 행 16 장 성령님과 바울의 선교에 대한 갈등

2. 특별 인도

독특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천사, 이적 등을 통해 인도하심.

예 : 해외 선교를 막으신 나의 간증

3. 도덕적 인도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계시된 도덕적 명령과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인도하심

4. 지혜 인도

도덕과 연관이 없는 선택에 있어서.

획득한 지혜를 통해 영적 적합성에 따라.

3.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주는 안내판

성경

시편 119 :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할 점 : 역사적 문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어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라는 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지 순례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환경

고린도전서 16 : 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러 함은

But I will stay on at Ephesus until Pentecost,

고린도전서 16 : 9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⁹ because a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has opened to me, and there are many who oppose me.

바울은 3 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하였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려는 이유는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린 것과 반대자들로 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한 때문이다(행 19 장).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이고 에베소에 오순절 까지 머물기로 한 것이다.

문이 열린 것만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믿음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더 좋은 다른 길을 예비하실 때도 있다.

내적 증거(inner witness of HS)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대표적인 것이 평강이다.

골로새서 3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숙한 조언

하나님께서서는 성숙한 신자의 조언을 통해 인도하실 때가 많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이다.

잠언 24 : 5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잠언 24 : 6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소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에 대하여 성급히 이기적이라고 버리는 것과 잘못이고, 자기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의 소원과 같다고 받아 들이는 것도 문제이다.

빌립보서 2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